

## 또 다시 잡초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올해는 조금 늦게 오려나?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을 따라 자연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또 다시 찾아 온 잡초들 때문이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마당에 관심이 없어졌고 그 사이 봄이 찾아와서 잡초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약을 뿌려야지라고 하면서도 벌써 2주가 지났다. 실은 이것이 첫 번이 아니다. 늘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잡초를 관리하기 위하여 3-4배의 시간을 보내는 때가 더 많았다. 작년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약만 뿌린 것이 아니라 옆드려 온갖 짓을 다해서 잡초와 이틀을 싸웠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그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은 내일이라도 밖에 나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비가 온다는 것이다. 결국 작년과 같은 고생이 되풀이되기가 쉬울 것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면 뻔히 알고는 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얼마간 한 성도들에게는 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시간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번이 지나고 그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일에 몰두하고 바쁜 스케줄을 따라가다가는 나의 영적인 생활에 온갖 잡초들이 춤을 추다가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이 영적인 잡초에 점령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신앙으로 사는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할 때에 하고 원치 않으면 벗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세상 생활과 인생의 모든 것 제일 위에 두어 그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 갈 때에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기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 내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믿음 생활을 둘 때에 인생은 평안과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왜 어렵지 않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곤란함도 어려움도 아니고 신앙의 승리와 믿음의 성숙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리라 믿는다.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34절)이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머리만 커지고 결단만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곧 이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의 뜨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비가 오든 안 오든....